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11

건강 챙기고 자신감 키우고

광주 장애인배드민턴협회

“서툰쪽으로 키운 자신감, 달라기로 더합니다.”

광주시장애인배드민턴 협회 회원들은 이번 봄에도 특별한 날이여 나간다.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참가는 올해로 5번째.

회원들이 마라톤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9년이다. 주변의 권유로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출전했던 대회였지만 시민들과 함께 질주를 하면서 회원들은 특별한 성취감을 얻었다.

이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가신청을 하는 등 3·1 마라톤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첫째 6명이 출발선에 섰지만 2010년 40명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올해도 40여명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4명의 선수가 10km에 출전해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게 된다.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회원들에게 3·1 마라톤은 한해의 각오를 다지는 무대가 됐다.

박봉희 협회장은 “한해 동안 회원들 모두가 파이팅하자는 의미에서 올

“올해도 회원 모두 파이팅”

40여명 출전 각오 다져

“전국대회 좋은 성적 낼게요”

해도 대회에 참가하게 됐다”며 “3월부터 장애인 배드민턴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3·1 마라톤을 통해 각오를 다지고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갖겠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가슴 설레는 봄날의 날들이, 윤경호(16·영천중)군에게는 더욱 기다려지는 순간이다.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윤군은 지난 2010년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동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전국장애인학생체전에서 광주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

전국장애인학생체전 광주대표 선발과 입상을 노리고 있는 윤군은 아빠와 함께 10km에 도전할 계획이다.

협회가 출범한 지 올해로 6년, 지난 2007년 7월 7일 창립해 모범적인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가 되기 위한 노력

을 하고 있다.

동장거리내역 공개를 통한 투명한 단체 운영, 모든 회원들이 어울릴 수 있는 초보자 위주의 운영, 지적장애인과 함께하는 운동분위기 조성, 운동장소 확보 등에 공을 들여왔다. 성적으로는 전국 7위에 머물고 있지만 회원들의 끈끈한 정과 분위기는 전국 어느 팀 못지 않다.

전남대학교, 광산구 빛고를 체육관, 교대 부설초 체육관, 복지관체육관 등에서 많은 회원이 장애를 넘어 배드민턴의 매력에 빠져 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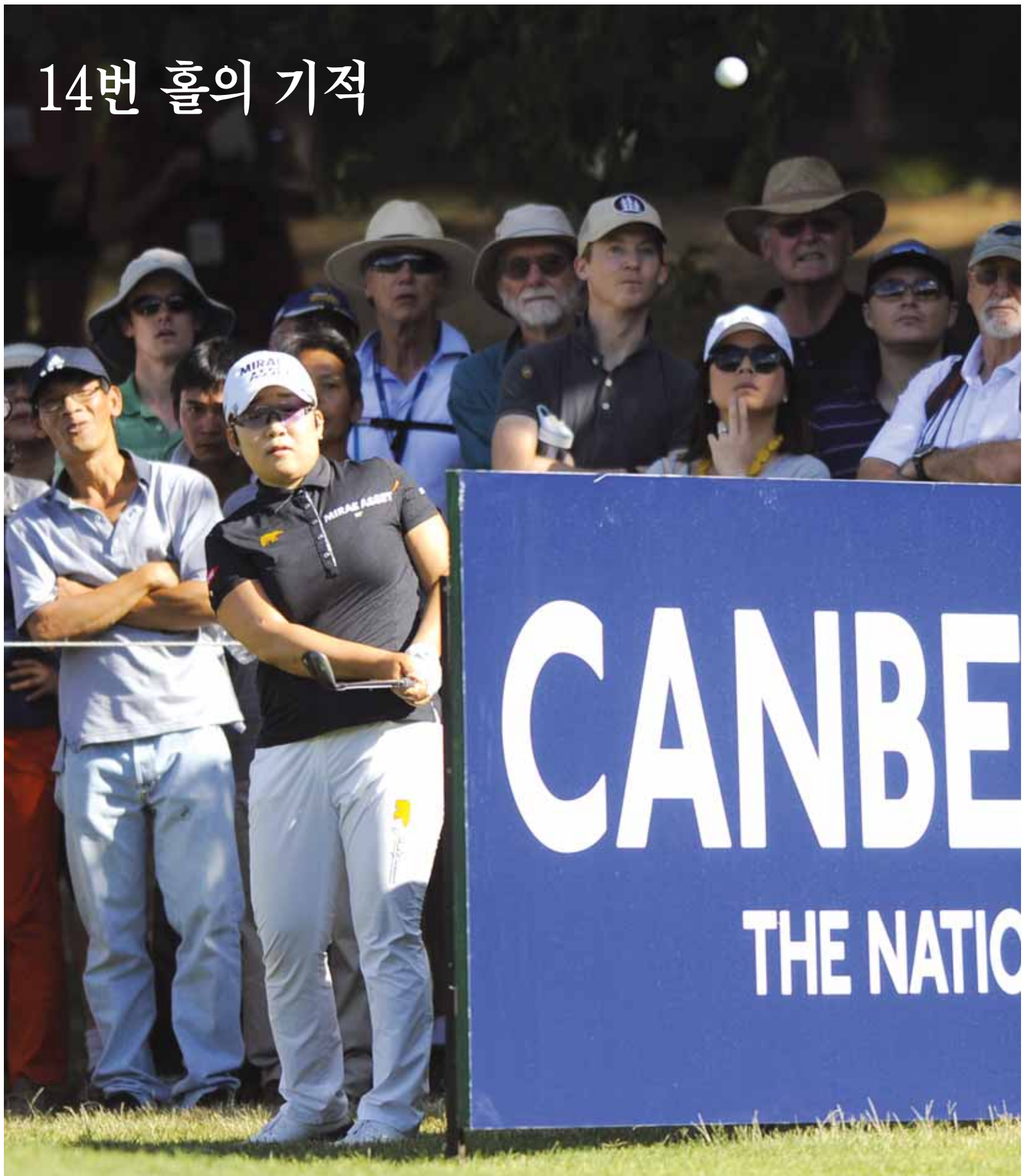
3·1절 마라톤을 통해 새 출발선에 서게 된 회원들은 전국체전과 국가대표 배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바쁜 한해를 보내게 된다.

이창현·주동재·김선경 등 20대 젊은 선수들을 앞세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올 시즌 협회의 목표. 또 회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게임에 국가대표를 배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장애인배드민턴협회 40명의 회원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출발선에 서서 힘찬 한해를 다짐한다.



‘지존’ 신지애(25·미래에셋)가 17일 끝난 올 시즌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에서 합계 18언더파 274타를 적어내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14번홀(파4) 그린 밖에서 날린 칩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 버디를 잡으면서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놓았다. /연합뉴스

여제도 천재도 넘김은 ‘마법의 칩인 버디’

<첨야니> <고보경>

신지애 LPGA 투어 개막전 호주여자오픈 우승

“출발 좋으니 앞으로도 몇번 더 우승하고 싶어”

한국여자골프의 간판 신지애(25·미래에셋)가 2013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개막전인 호주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오르며 새 시즌을 화려하게 시작했다.

신지애는 17일 호주 캔버라 골프장(파73·6679야드)에서 열린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마지막 날 세계랭킹 1위 첨야니(대만)와 ‘천재 소녀’ 리디아 고(16·한국이름 고보경) 등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종 라운드에서 1언더파 72타를 친 신지애는 합계 18언더파 274타를 적어내 첨야니(합계 16언더파 276타)를 2타 차로 따돌렸다.

신지애는 지난해 처음 LPGA 투어로 편입된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정상에 올라 삼금 18만 달러를 받았다.

2010년 11월 미즈노클래식에서 우승한 신지애는 시력 교정에 이어 지난해에는 시즌 중 손바닥 수술을 받는 등 부상을 시달리며 2년 가까이 침묵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킹스밀렉 피어싱에서 1년10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하다니 그 다음 주 열린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4년 만에 우승컵을 되찾으며 완벽하게 부활했다.

올 시즌 시작을 우승으로 장식한 신지애는 LPGA 투어 통산 11승째를 기록했다.

3라운드까지 3위와 6타 차 공동 선두에 올라 우승 후보로 떠오른 신지애와 리디아 고는 4라운드에서 타수를 많이 줄이지 못해 첨야니에게 바짝 추격당했다.

리디아 고가 1번홀(파5)에서 티샷이 흔들리면서 더블 보기를 낸 사이

LPGA 호주여자오픈 최종순위

Table with 2 columns: Rank, Name, Score. 1. 신지애 -18 274.65 67 70 72. 2. 첨야니 -16 276.68 71 71 66. 3. 리디아고 -14 278.63 69 70 76. 4. 모리아 주타누가른 -13 279.70 70 70 69. 벤틀리스 렌카리 (68 69 71 71). 6. 글래디스 노세라 -12 280.74 71 65 70. 카를로라 시간다 (71 70 69 70). 8. 카트리나 맥류 -11 281.69 75 70 67. 타디파 수원니푸라 (71 72 71 67). 캐서린 힐 커크 (68 73 71 69). 마리아 호세 우리베 (64 67 79 71).

신지애는 세 번째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여 버디를 잡으며 단숨에 3타 차 단독 선두로 순위를 끌어올렸다. 하지만 5번홀과 12번홀(이상 파4)에서 보기를 내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고, 결국 12번홀에서 버디 퍼트에 성공한 리디아 고에게 공동 선두 자리를 다시 내줬다.

신지애는 6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는 등 최고의 경기 감각을 보여준

첨야니에게도 1타 차까지 쫓기며 위기를 맞았지만 14번홀(파4)에서 분위기 전환의 발판을 놓았다. 그린 밖에서 날린 칩샷이 그대로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버디를 잡았다.

리디아 고는 이 홀에서 보기를 내 3위로 밀려났다.

기세를 탄 신지애는 15번홀(파5)에서도 버디 퍼트에 성공, 승리에 쾌거를 박았다.

제니 신(21)은 7언더파 285타로 공동 18위에 올랐고, 호주 교포 오수현(17)은 6언더파 286타로 공동 28위에 각각 자리했다.

신지애는 “더운 날씨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마지막 조라서 부담이 꽤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다. 14번홀이 오늘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 홀부터 샷과 퍼팅이 전체적으로 나아져 우승까지 이어졌다”며 “개막전이라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승해 기쁘다. 이제 시즌이 시작됐는데 출발이 좋았으니 앞으로도 몇번 더 우승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두 얼굴의 오스카

경찰 ‘피스토리우스, 침실·욕실 훑아가며 여친에 총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의족 스프린터’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6)가 쓴 총탄에 숨진 그의 여자친구가 사건발생(광주일보 15일자 14면 보도) 전날 피스토리우스 집을 방문해 머물렀다고 현지 언론 ‘시티 프레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찰 소식통을 인용해 여자친구 리바 스티넬프가 지난 14일 오전 프리토리아 동부에 있는 피스토리우스의 자택에서 발견됐을 당시 잠옷을 입고 있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복수의 경찰 소식통을 취재한 결과 스티넬프가 13일 밤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침대에 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피스토리우스의 집에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은 피스토리우스가 스티넬프를 강도

로 오인해 총을 쏘다는 주장을 경찰이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

특히 피스토리우스는 침실에서 먼저 스티넬프에게 한 발의 총을 쏘고 그녀의 골반을 맞췄으며, 그녀가 침실에 떨어진 욕실로 달아나 문을 잠그자 3발의 총탄을 더 발사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스티넬프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것으로 추정되는 데 그녀가 머리와 팔, 손에 총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피스토리우스 침실 바닥에서는 스티넬프의 아이패드와 여행용 가방이 발견됐다. 또한 피스토리우스의 집에서 피가 잔뜩 묻은 크리켓 배트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스티넬프가 자위차원에서 크리켓 배트를 휘둘렀을 가능성과 피스토리우스가 닫힌 욕실문



지난 15일 법정에서 얼굴을 감싼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연합뉴스

을 부수기 위해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피스토리우스 가족은 지난 15일 성명을 내 “가장 강력한 어조로 피스토리우스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스토리우스는 지난 14일 살해 혐의를 체포됐으며 오는 19일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여행비 68,000원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여행비 37,000원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불포함 식사비